

믿음과 희망주는 고성군의회

2024. 9. 12.(목) 10:00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 체계적인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에 관한 제언 -



고성군의회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에 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민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나

향후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2024년 8월 기준, 경상남도 내 지정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총 1,757개소로
이중, 고성군은 36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적은 편이지만,

찾아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성군의 지역실정에 맞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개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곳은
절차가 명확하지만,

그 외 지역은 지자체별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담당 부서에 따라 판단이 다르거나
지역별 편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하고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 지하차도, 하천시설 등
지정 기준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해안지역이 많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군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보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 보도자료)

지난 7월 충청권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6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들 지역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자연재해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수습하기보다,
사전 철저한 점검과 대안책 마련을 위한
사전 대비 상시화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재난 대응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2. 영상자료)

산지가 많은 경상북도는,
달라진 기후 환경에 맞춰
산사태 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범위를 늘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지난해부터 '극한 호우'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극한 호우는 서울에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한 이후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단적인 비'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극한 호우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듯,
자연재해 우려지역의 관리 범위를 늘려
우려지역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평균기온과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급증하는 기상재난 속에서,
과할 정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신속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재해예방과 비상근무로 애써주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들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